사법개혁특위 구성…검찰 개혁 탄력 받나

입법권 부여돼 법안 특위 통과시 법사위 우회
공수처 설치 청신호…국정원 개혁 포함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계기로 다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별도 특위 구성으로 법안 심사의 판이 바뀌면서 활로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의 입법권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검찰 개혁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이다. 일단 법안이 특위만 통과하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법사위가 검찰개혁안을 장기간 잡아두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면서 공수처법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의과정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는 '한 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 구성으로 꽉 막혀 있었던 사법 개혁의 논의 창구가 다시 열렸다"며 "특히, 법사위원들이 특위에 참석할 수 없어 여야 간의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에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 특위가 다루는 검찰·경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개혁 방안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되려면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 야권이 과반을 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사법 개혁을 위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與 "사필귀정"…한국당 '침묵'

정치권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구속된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당 소속 의원이 2명이나 구속된 자유한국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언급을 꺼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여타 정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의원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당은 두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前)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공천헌금 모두 한국당을 넘어 전 정권과 연관된 적폐인 만큼 검찰은 이번 구속수사를 통해 (추가 수수) 관련자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2명이나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지만 대변인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진 않는 등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이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비호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민주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중진들 "적폐청산, 제도 뒷받침 돼야"
취지 공감…속도 조절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속도 조절론'이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적폐청산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당내에서 인적청산 등을 포함한 적폐청산을 '멈출 수 없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해 새해에도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론의 불을 지핀 의원은 6선의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었다. 문 전 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반드시 적폐청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 유념하면서 혁신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청산에는 느슨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6선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2일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진들의 발언은 인적청산보다는 제도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고 적폐청산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면서 꾸준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인적청산을 포함한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던 당내 일반적인 기류와는 결이 달라 주목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새해 적폐청산 기조는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러나는 결과에 따른 인적청산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UAE 특사 파견 논란' 확전

군사협정 시기·이면계약·방문 목적 등 여야 연일 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으로 촉발된 의혹이 전·현정부 책임론으로 번진 것은 물론 '외교적 한계선'을 넘나드는 수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선 여야 정치권은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시기를 놓고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신뢰에 손상이 가 (임종석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UAE와의 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MOU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김 의원은 "(UAE와)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 수출 등을 둘러싼 협력이 있었지만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초기인 2008년 완전히 깨지고 T50 수출도 무산된다"며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원전을 수출하면서 군사협력을 끼워 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협정이 깨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면계약' 여부다. 이명박 정부가 계약 과정에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크부대 파병 등 군사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택에서의 신년하례회에서 "이면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분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UAE와의 '외교적 신의'가 걸려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목적도 논란이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UAE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한 대통령 친서 전달이라는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한국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한 UAE 원전 수주 계약 등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다가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UAE를 찾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 실장이 UAE 왕세제 등과 나눈 대화는 외교적 관례상 공개할 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美서 귀국…통합 역할론 주목

수개월 간 미국에 머물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절차가 본격화하고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내홍이 증폭되는 시점인 만큼, 돌아온 김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안철수 대표가 가칭 '새정치연합' 창당을 추진하던 시절 양자 회담을 통해 합당을 결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다. 이후 김 전 대표와 안 대표는 5개월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고, 2016년 1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에 함께하는 등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왔다. 2016년 4·13 총선 당시에는 '자강론'을 주장하는 안 대표와 '연대론'을 주장하는 김 전 대표가 충돌했으며,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역할을 맡지 않고서 외곽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 전 대표가 안 대표의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도 지난달 전(全)당원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가 최근 해외에 나가기 전에 만나 통합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김 전 대표가 안 대표의 통합신당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생각은 통합에 가까울 것"이라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최근 몇 달간 국내를 비웠던 만큼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7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0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2018. 2. 6(화)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